은은한 푸른 빛깔이 도는 독특한 재료로 겉을 장식한 에브릴 청사. 건물의 안쪽에는 마치 처음부터 준비된 듯한 커다란 연회장이 존재한다. 어지간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고서야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개방되는 장소였다. 이미 연회장은 특유의 행사 분위기로 가볍게 달아올라 북적이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선 것과 달리 연회장에 모인 마법사들은 저들만의 용건이나 수다로 바빠 조용히 입장한 두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챙 넓은 모자를 눌러쓴 밀라와 평소와는 다르게 말끔히 꾸민 실리카 양쪽의 분위기가 다른 탓도 있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다소 김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상황이었다. 연회 참석 신고를 하는 장소는 연회장을 쭉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참석 도장을 찍고 간단한 마력 검사를 받은 후에는 연회를 즐기던, 귀가를 하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4년짜리 자유의 몸이 될 것이었다.

“조금 일찍 오길 잘 한 거 같아.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교수진들은 아직 도착 안 한 모양이네.”

“…그렇군요.”

“마법사 쪽수가 적다고는 해도 전 제국 대상이니까. 4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추면 잘 못 알아 본단 말이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실리카를 보며 밀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한건 아쉬웠으나, 밀라는 적당히 바람을 쐬었다 생각하고 오늘은 가볍게 귀가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람 생각이나 계획은 좀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바로 잠시 전 가볍게 가졌던 마음은 상상도 못한 계기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연히 연회장에서 부딪힌 사람이 이전 직장 동료였다거나 하는 우연 등 말이다. 심지어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사람과!

“허?”

“…?”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연회복을 입은 남성이 삐딱하게 한쪽 눈썹을 들어올리며 오만하게 밀라를 내려다보았다. 새삼 야비한 인상이다, 하고 밀라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남자가 먼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음을 놓고 있던 실리카가 남자를 제지하기 전 일어나버린 사건이었다. 남자가 입을 열자 얼굴과 꼭 어울리는 비열한 어조의 목소리가 크게 쩌렁쩌렁 울렸다.

“어이쿠, 이거 밀라 레첸스 선생님 아니십니까?”

“… …”

“아니지, 이제는 전! 선생님이니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군요! 어어디 흑마법사한테 무서워서 바른 말 하겠습니까?”

대놓고 업신여기는 어조였다. 밀라 레첸스, 그리고 흑마법사라는 두마디에 연회장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저마다 무언가의 내용을 담은 웅성거림이 뭉개진 말음으로 귀에 들려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밀라는 표정의 변화 없이 이놈 봐라? 하는 심정으로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이런 극적인 타이밍에 진짜 밀라의 기억이라도 기적처럼 떠올라주었으면 하는데…’

물론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초면의 남자를 돌처럼 슥 훑어보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밀라의 이런 무심한 행동 어디가 야비한 남자를 자극했는지 그는 돌연 분노하며 안 그래도 큰 목소리를 높였다. 듣다 못한 실리카가 밀라와 남자 사이를 막아서며 남자를 옆으로 밀어내었다.

“그만 좀 하시죠, 바렐 씨.”

‘아하, 저 사람 이름이 바렐 씨군요. 기억했답니다.’

“허어? 이것 참? 실리카 씨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밀라 전! 선생님이 어디서 또 새로운 약혼자를 구해오셨나 했더니만… 약혼자가 아니라 자기 편만 들어주는 왕자님을 데리고 오셨군요!”

다분히 조롱 섞인 문장이었다. 실리카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가 이내 무언가의 이유로 붉어졌다. 수치스러움 때문이었을까?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 밀라는 바렐의 모든 말이 같잖지도 않다 느끼며 실리카의 등을 가볍게 톡 쳤다. 악녀가 악명을 떨치던 스무 몇 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남녀 사이의 우정은 꼭 연애적인 의미를 담은 소문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꼭 달갑지 않은 점만은 변하지 않았다. 바렐과 실리카의 언쟁을 짧게 지켜보던 밀라는 적당할 때에 나서서 두 사람의 언행이 더욱 격해지는 것을 막았다.

“엄연히 황가 분들도 참여하는 연회에서 제국민인 실리카 씨에게 왕자님 운운이라니요. 저와는 달리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높은 스승 되시는 분이 그리 불충한 이야기를 입에 담아도 되는 걸까요?”

“레첸… …”

“더군다나 이제는 직장 동료도 아닐텐데 저희 앞을 막으시는 공적인 용건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마법사 정기 생존 신고보다 더 중요한 용건이 있으신지요?”

고조 없는 밀라의 말에 기세등등하던 바렐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게 변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밀라와 실리카는 바렐을 비켜서 지나쳐갔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눈 앞의 피곤하고 못생긴 아저씨를 치운 후 연회장에서 유유자적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는 실리카도 마찬가지였는지 둘은 빠른 걸음으로 참석 신고를 받는 사무실로 향했다. 두어 명 정도가 이미 사무실의 문 앞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다. 잔뜩 풀이 죽고 어두운 표정을 하며 실리카는 오른쪽 손으로 제 미간과 눈가를 여러 번 꾹꾹 눌렀다. 소꿉친구가 먼저 입을 열지 않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무도회의 부드러운 노래와 연회장 쪽에서 ‘황제와 제1황녀’가 입장한다는 문지기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올 정도로 고요가 내리앉았다.

“기분 상했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바렐의 모욕적인 태도보다도 실리카의 미안해하는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 그 대답을 끝으로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앞에서 줄을 선 두 사람이 용무를 보러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야 실리카는 다시 입을 열었다.

“바렐 마티우스라고 해. 로시난테의 현재 교수고. 그, 우리가 교수일 당시에도 썩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네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렐처럼 무례하고 비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 보이네요. 열등감을 가진 자는 참으로 상대하기 피곤하답니다.”

“알고 있었구나. 마물에게 피해를 입고 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앞장서서 너를 쫓아낸 사람이야. 내키지는 않겠지만 기억해두고 조심해.”

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친구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조심할 생각이었기에 크게 덧붙일 말은 없었다. 일레인으로서의 살 때 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이지 피곤한 상황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곧 두 사람의 차례가 돌아왔고 밀라는 이십 몇 년만에 마법사 정기 신고를 하러 발을 내딛었다.

“어휴… 어서 일 끝내고 돌아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긴장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으나, 평소처럼 가볍게 투덜거리는 실리카의 태도에 마냥 무겁던 마음이 다소 가벼워졌다. 어찌되었건 그녀는 현재 일레인이 아닌 밀라였으니.

\* \* \*

일레인은 사람의 냉철한 이성이니, 변하지 않는 상냥함이니 따위의 것을 믿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게 되었다에 가까웠다. 배울만큼 배운 이라도, 강한 힘을 가진 마법사라도, 뻔히 아니라고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이라도. 한 번 자신의 감정에 매몰된 사람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했다. 세상을 보는 일레인의 쾌쾌한 시선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밀라로서 새로운 삶을 얻고 레반 모자와 라일라의 친절함에 그녀는 아주 잠시 느슨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밀라는 머리와 얼굴, 외출복에 쏟아진 음료를 묵묵하게 손수건으로 닦아내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였는지 온 몸과 손이 끈끈했다. 밀라가 혼자 남는 순간을 노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실리카와 밀라, 두 사람은 마법사 정기 신고를 마치고 바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실리카가 현 군 상사에게 호출을 당하며 일정이 틀어지게 되었다. 황제와 함께 일레인을 소탕하러 찾아왔던 명망 높은 기사 ‘마리네스 프라기안’이 실리카를 불러세운 것이었다. 마리네스의 옆에는 그녀의 막내 아들 ‘유겐 프라기안’이 사랑스럽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 일레인 소탕 당시 실리카의 마법 실력을 눈여겨본 마리네스는 기회를 잡아 그녀의 막내 아들을 실리카에게 소개해주고자 했다. 실리카는 주저하였으나 마리네스의 부름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나 실리카가 계속 군에 못박고 있을 상황이었다면. 밀라는 저 때문에 그녀의 친절한 소꿉친구가 불이익을 당하길 바라지 않았다. 등을 떠미는 밀라의 손길에 실리카는 금방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프라기안 모자 쪽으로 몸을 틀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연회장 휴게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별 일 없을 거예요.”

실리카가 상사를 상대하는 동안 휴게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숨을 죽이면 모두가 그녀에게서 관심을 거두지 않을끼? 허튼 바램이었으나 밀라는 부디 그러기만을 바랬다. 물론 세상은 항상 그녀의 편이 아니라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밀라의 차림새를 주시하고 있던 한 여성은 실리카가 용무를 보러 밀라의 옆자리를 비우자마자 밀라의 뒤를 은밀하게 따라붙었다. 여성의 손에는 붉은 빛깔의 단 음료가 가득 담긴 큼직한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바렐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밀라 레첸스라지?”

뜬금없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낯선 여자를 보며 밀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러나 밀라가 한 걸음 물러서 제대로 피하기도 전, 여자는 손에 든 음료를 그녀에게 뿌리며 고운 외출복에 침을 뱉었다. 간만에 겪어보는 모욕감 가득한 행동에 밀라는 얼음처럼 굳을 수밖에 없었다.

“선생이란 년이! 제 제자들을 다 죽여 놓고 뻔뻔하게 시시덕거려?”

“전…”

“너…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알아? 이 나쁜 년! 무능한 년! 잘못해놓고 도망가서 남의 뒤에 숨으니 마음이 편하던?”

그제서야 밀라는 깨닫았다. 이 여성은 ‘진짜 밀라’가 가르치던 제자의 부모였다. 마물 습격 사건이 터졌을 때 그녀의 딸은 사고에 휘말려 사망했고, 딸을 잃은 어머니의 분노는 세간에서 말하는 원흉인 밀라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다. 화를 이기지 못한 여성은 유리잔을 던졌고 멍하니 폭언을 듣던 밀라는 뒤로 주춤 물러나며 자칫 흉기로 변모할 수 있는 잔을 피했다. 바닥에 처박힌 유리잔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잔이 깨지며 내는 파열음과 여성의 악에 받힌 소리를 들은 휴게실 근방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었다.

“아… 죄, 죄송…”

습관처럼 사과하려 입을 연 밀라는 이내 입을 꾹 다물었다. 이러한 상황은 익숙했다. 일레인이던 시절, 반역자인 벨칸스이던 시절 숱하게 겪어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익숙함과 별개로 끔찍한 감정은 그녀를 괜찮음에서 멀어지게 했다. 밀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외출복의 치맛자락을 꼭 쥐었다. 왜 자신은 항상 적대당하는 걸까? 잘못한 것이 하나 없지 않은가? 누구는 쉽게 얻는 사랑과 호의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며 항상 전전긍긍하는 삶이었다. 오래 묻어둔 억울함이 솟구쳤다.

“죄송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며 밀라는 도망치듯 휴게실 뒷문으로 내달려 빠져나왔다. 정말이지 도망치고 싶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로든지!